

“〈금강경〉 읽으면 탐진치 닦고 청정해져”



금강경 공부하기
정천구 지음
작가서재 펴냄
1만5천원

“금강경은 반아부 핵심을 잘 요약한 경전입니다.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기원정사 대법회에 1,250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설법을 듣고 있다는 마음으로 독송하면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으면 재앙이 소멸되고 깨닫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정천구 서울대지질대 정치행정학과 석좌교수는 前 동국대 총장을 지낸 백성욱 박사에게 〈금강경〉을 배웠다. 항상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법문을 들을 정도로 꾸준히 공부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수행방법으로 금강경을 날마다 독송하는 이유는 읽을 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바가 늘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제목인 ‘금강경 공부하기’란 〈금강경〉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여 경의 가르침을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저자가 오랫동안 해온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공부’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 같이 책을 읽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리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뜻이다. 이 책은 그런 〈금강경〉 공부에 초점을 두었다.

금강경을 읽어 ‘바치는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처음에는 피부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며 더 공부를 계속하면 정신적 변화와 함께 육체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정신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게 저자의 체험이다.

탐심을 일으키면 어두운 세포가 생성되고

백성욱 박사에게 〈금강경〉 배워

몸과 마음으로 익혀야 참공부

실제 삶에 적용되게 쉽게 해설

32품을 8개 장으로 나눠 설명

진심을 일으키면 독성이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며 치심을 일으키면 탁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고통 받게 되니 한 생각이라도 소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탐진치를 닦고 몸공부에 집착하는 마음을 바치면 청정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마음이 청정하면 여러 마음이 청정하고 여러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줄 최고의 금강경 해설서이자 금강경 공부 실천서 이 책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한다.

2006년 작 〈금강경 공부하기〉의 개정판인



이 책은 스님과 같은 전문적 수행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설로 풀어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금강경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본 텍스트는 소사백성 목장에서 발간한 〈백성욱 박사 현토: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독송용 이 소사본 금강경은 나습의 한역금강경을 고려대장경 등을 참고해 유통본의 오류를 많이 바로 잡았고 뜻을 파악하면서 독송할 수 있도록 현토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의 첫 부분은 경의 제목과 유래를 다뤘고, 효명대사가 분절한 32품을 여덟부분으로 나눠 해설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히 새로운 분류를 제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경의 흐

름에 따라 문장 단락이 밀린 곳을 택해 32품을 몇 개의 장으로 나눠 해설함으로써 불자들이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한편 이 책에는 금강경의 명칭과 유래를 비롯해 ‘금강경의 요체’ ‘수행의 방법과 단계’ ‘금강경의 공덕과 수지법’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경을 설하는 공덕’ 편에서 저자는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세계는 그 자체로 빈 것이요 중립적인 것인데 각자의 업식이 발현돼 건립된 세계라는 점을 상기해 보자”며 “〈금강경〉은 이런 업식을 깨끗이 해주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향하시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보배로 가득 채워 보시한 공덕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비교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보배를 주는 것보다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계로 가는 열쇠인 이 경을 읽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정천구 교수는?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한국외대 정치학 학사를 받고 고려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부터 1983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영산대 초대 총장직을 수행했고, 현재 서울대지질대 정치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 등 10여 편의 저서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연구〉 등 40여 논문이 있다.

불교 철학 정수 〈원각경〉을 종밀 주석으로 해명하다

원각경 · 현담

규봉 종밀 지음 | 신구학 번역
정주서적 펴냄 | 1만8천원



이 책에 번역된 〈원각경〉은 7세기경에 비로소 한자불교 문헌에 등장한다. 이 〈경〉은 인도의 ‘석가모니’가 한 말이라고 돌려대지도 않는다. 〈원각경〉의 설주는 ‘바가바’ 즉 세상이 아니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무한히 확장해 주고 있다. 이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자는 원문에서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의 독서법인 구결을 채택하고 있다. 일차 번역인 구결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전통을 보지하려는 욕구를 숨기지 않는다. 표점 내지는 백문으로 한문 경전 읽기가 아닌, 구결을 통한 한문읽기는 우리만의 고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역사와 전통 교육 방식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역자가 무조건 과거 회귀적이지 않다는 것은 역자의 역문이 여실히 증명해 준다.

역자는 철학자이다. 누구의 말인가가 아닌, ‘경험 가능한 효과성(empirical effectiveness)’의 유무에 따라 진리를 판별하는 역자의 진리관은 현대 철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번역문 또한 역자의 현대적인 글쓰기의 귀감을 보이는 데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직지〉를 43가지 이야기로 재조명



직지이야기
박성진 역음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수 대학사 펴냄
1만5천원

유네스코가 2001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세계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다. 그러나 〈직지〉가 우리 문화유산인데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외국 문화계 일각에서는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됐던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와 달리 세계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면서 〈직지〉가 갖고 있는 의미마저 깎아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에 실린 43가지 이야기들은 〈직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우리 고유의 인쇄 및 출판 문화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제 1부에서는 조선 최초의 근대화 여성으로 알려진 ‘파리의 조선 공녀 이심’과 그녀의 남자로 유명한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 빅토르 콜랑 드 플랑시의 비극적 로맨스, 플랑시 공사와 〈직지〉의 만남, 그리고 재벌 사학자 박병선 박사에 의한 〈직지〉의 재발견이 그려진다.

빅토르 콜랑 드 플랑시는 〈직지〉를 도둑질한 자라는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플랑시는 프랑스 최초의 한류팬이자 조선 공물품 애호가였다. 국가 재정 악화로 관리들에게 봉급조차 주지 못하던 조선 조정을 위해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한다. 또한 조선군을 무장시킬 프랑스제 무기 도입에 관여했다. 그리고 자신이 주재하던 나라인 조선에 정을 붙이려고 비서들과 함께 고서와 공물품 수집에 나섰다. 그 고서들중 하나가 바로 〈직지〉였다.

이어 2부에서는 스승인 백운 화상의 뜻을 받들어 금속활자로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 승려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제 3부에서는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인 〈직지〉의 내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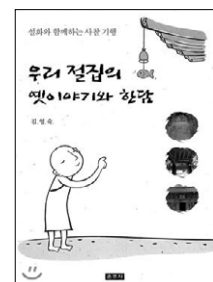
가르침이 소개돼 있다. 제 4부에는 우리 고유의 인쇄 및 출판문화가 상세히 다뤄져 있다. 이야기를 사이사이에 불교나 인쇄 관련 전문 용어를 자세히 해설한 코너와 관련 이미지 자료, 그리고 최초로 공개되는 플랑시 공사와 이심부부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희귀자료 등이 있어서 읽는 재미를 더한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보여준 결정적 증거인 흥덕사지, 즉 흥덕사가 있던 터의 발견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 한국토지공사가 운전 지구 택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1984년 11월 29일, 그 일대에서 유적 발굴조사를 하던 청주대 박물관 조사단은 근처 마을 주민의 제보로 고려시대 절터를 찾았다. 그런데도 토지공사가 공사를 강행하자, 조사단은 토지공사가 반출한 흙으로 조성된 택지까지 면밀히 조사해 청동보당용두와 승려들이 쓰던 사발 등 다양한 유물을 발견했다. 그중 불발에 새겨진 글은 이곳이 흥덕사지임을 분명히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은 1986년 5월 7일에 흥덕사지를 사적 제 315호로 지정했다. 김주일 기자

20개 사찰의 역사 소개

우리 절집의 옛이야기와 한담

김영숙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절집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 하나하나에는 단순히 재미삼아 눈요기로 넘겨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속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해당 절집의 역사, 그 절집과 함께한 스님들의 이야기, 민중들의 염원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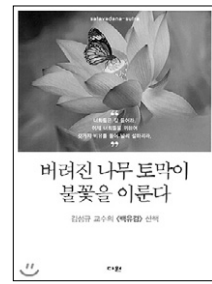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오래 전 재미있게 읽었던 절집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사찰에 얽힌 이야기와 그 사찰을 여행하며 생긴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그려냈다. 금련사, 내원사, 용연사, 파계사, 승가사, 정암사 등 20개 사찰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기억 저편에 떨어져 가고 있던, 경전에 대한 메모와 노트를 하나씩 살펴보면 저자는 추억을 되새겼다고 한다.

김주일 기자

〈백유경〉 99가지 우화 모아

버려진 나무토막이 불꽃을 이룬다

김성규 지음 | 다원 펴냄 | 1만3800원



〈백유경(百喻經)〉은 5세기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가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적 깨우침을 주고자 짙막한 교훈적 우화들을 모아서 편찬한 작품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불교 경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있고 쉬운 비유와 해학성이 넘치는 이야기 가운데 불교 가르침 이상의 깨달음을 보여준다.

비록 우리와는 다른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짙막한 이야기로, 우리의 인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